

# “도서관은 ○○○다”

## - 책 보는 곳? 서고? 문화시설? 쉬는 곳?

국회도서관장 허용범  
yb22032@nnet.go.kr



얼마 전 서울의 한구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국회도서관을 방문했다. 관내에 꽤 큰 도서관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지 조언 겸 아이디어를 들어온 것이었다.

우리 도서관의 소개를 포함해 두어 시간의 여러 대화를 통해, 나는 이미 그분이 도서관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도서관도 이제 과거처럼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기고 공간을 공유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최근 들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도서관 기능의 핵심을 짚고 나갔다. 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올해 들어 확연히 바뀐 국회도서관의 풍경, 예컨대 카페와 중앙홀 오픈서거, 자유열람실 등을 함께 돌아보며 의기투합 하듯이 맞장구를 쳤다.

### 변화 앞둔 도서관의 미래

‘도서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랑가나단의 명언대로 도서관이 ‘성장하는 유기체’라면, 요즘이야말로 옛날의 껍질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재탄생할 수 있는 시기다. 인류사 2000년간 도서관은 주로 건물과 책의 결합이었다. 그런 도서관은 이제 인쇄물로서의 책과 특정한 건물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의 서비스라는 통념이 깨지고, 마치 우화(羽化)해 날개를 단 나비처럼 ‘공간에서 자유로운’, 말하자면 전혀 차원이 다른 유비쿼터스적 서비스 기관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시기이다. 나는 그 핵심에 디지털 데이터와 공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이는 단순히 도서관 기능의 진화 수준을 넘어 새로



서울시 교육청 사서교사 직무연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 혁명과 사명에 대해 강연 중인 허용범 국회도서관장(8. 13.)

운 종(種)이 탄생하듯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여길 정도로 근본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여긴다.

### 고정관념을 깨고 더 나은 미래로

먼저 디지털의 기능, 국회도서관에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생긴 것이 20년 정도이며 그 활용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예컨대 국회전자도서관 원문DB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이 한 해 동안 협약을 맺은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기관’의 수는 2017년 54개, 2018년 74개에서 2019년 올해는 이미 300기관이 넘어서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그만큼 디지털 자료의 이용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자도서관의 이용통계만 보아도, 2015년 1542만 명이던 이용자는 2017년 1827만 명으로 다소 늘었으나 작년인 2018년에는 그 배에 가까운 3006만 명으로 늘어났다. 우리 도서관을 비롯한 12개 학술기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 또한 수직상승해, 1년 전인 작년 6월 4548명이던 이용건수가 올해 6월엔 34만 581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국민에게 공개한 외국법률번역DB의 경우도 올해 7월 기준으로 2만 7215건으로, 작년 7월 대비 290%가 늘어났다. 이는 시스템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디지털화된 자료에 대한 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이용은 전통적으로 책 중심이었던 도서관 서비스를 본질적으로 바꿔놓고 있으며, 그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도서관 서비

스의 방식에 있어서도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되면서, 과거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형태의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 직접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컴퓨터나 심지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고 원문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유티리티스틱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정보의 축적과 이용 양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역시 대세를 이뤘나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는 휴대전화에 깔린 국회전자도서관 앱을 통해 특정 검색을 할 때, 우리 도서관이 가진 모든 디지털 자료가 불과 0.1초 만에 일목요연하게 뜨는 것을 보며 스스로 감탄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의 경우도, 아직은 디지털 역량에서 큰 한계를 갖고 있지만, 점점 서비스의 상당부분은 디지털 쪽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믿고 있다. 구글 북스 프로젝트든, 구글 스칼라든, 세계적인 OCLC시스템이든, 우리나라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이든, 도서관이 가진 모든 지식정보 자료를 네이버나 구글에서 일상적 관심사를 검색하듯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런 때도 물론 책이라는 고전적 지식정보 매개체 자체는 존재할 것이지만, 지금까지처럼 ‘책 중심’의 도서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미 벌써 도서관에 있어서 종이책은 장식용 내지 구색용 비치품에 그치는 사례들도 국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도서관

그렇다면, 전면적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도서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최근 도서관 서비스의 세계적 경향이나, 우리나라에 설립되는 수많은 공공도서관을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은 대체적으로 복합문화공간화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책을 중심으로 하던 지식정보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도서관이 보유하거나 공유 내지 매개하는 지식정보의 이용형태가 책갈피에 코를 바고 읽던 시대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도서관이든지 초대량의 지식정보를 모두 스스로 디지털화하거나 구입해 서비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디지털화한 자료의 공유와 협력은 미래도서관 서

스의 핵심적 과제다. 우리 국회도서관만 해도 이미 지난 6월의 ‘지식정보 SOC선언’을 통해 천명했듯이, 모든 자료를 공유(Share)하고, 공개(Open)하며, 협력(Connect)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데이터를 가능한 한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시설도 개방·공유하기 위해 카페를 설치하고 중앙홀 대개방이라는 조치를 취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ID를 연계한 본인인증과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시스템 간소화, 개인 책 반입허용 등의 수많은 개방적 조치를 취한 것도 시대변화에 맞춰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이미지를 바꾸려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한 개방, 공유, 협력의 결과, 디지털 데이터 이용률이 앞서 보았듯이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도서관을 찾아오는 열람자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3000명 수준이던 평일 하루 평균 열람자가 지난 6월 즈음에는 4000명을 넘어서더니 7월에는 5000명을 넘나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방학과 무더위 등 계절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으나, 같은 기간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도서관 자료의 개방과 공유는 어느 일방이 아닌 상호 간의 개방과 공유를 전제로 하는데, 앞으로 자료의 디지털화와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가속화되어 갈 때 국가 전체의 모든 도서관이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마야흐로 4차 산업혁명기 속에 도서관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다. 변화란, 기존 체제에 머물러는 이에게는 위기지만, 성장하려 몸부림치는 이에겐 기회이다. 지난 2013년, 인구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일본의 작은 시골도시 다케오 시의 시립도서관이 재개관 1년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한 기적을 만들어 낸 것도 도서관의 혁명적 변화를 선도했기 때문이었다.

인류사 2000년간 이어져오던 도서관의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수많은 실험적 도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때다. 기존 도서관의 오랜 관행, 그렇기에 편안한 체제 속에 머물지 않고, 그 껍질을 과감하게 깨고 나와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보려는 이들에게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가왔다. 🦋